

최근 고용성과와 전망

남재량*

고용성과를 놓고 보면 2013년 상반기는 우울한 시기였다. 무엇보다도 취업자 증가가 3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아직 남아 있던 2010년 상반기 이후 가장 저조하다. 올라도 시원찮을 고용률은 0.1%포인트 하락하였다. 취업자 증가율이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이러다보니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들이 들려온다. 그러나 나쁜 소식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씩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를 전망해보자.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이 저조하였다. 2012년 3사분기부터 2013년 1사분기까지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1%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2013년 2사분기 성장률이 2.3%(한국은행 속보치)로 높아졌으나, 이를 큰 폭의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고용이 성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된 지도 이미 오래다. 2011년 1사분기 이후 성장률이 4% 수준에 진입한 적이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훌륭한 고용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성장은 고용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성장의 고용효과는 단기적으로 약화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 여전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2.8%, 하반기 3.7%의 성장률을 전망한 바 있다. 2사분기의 성장률 회복을 발판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해 본다.

우리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공급 측면을 통해 노동시장에 중요한 변화들을 초래한다. 특히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변화가 크다. 청년층의 경우,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25~29세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 집단의 인구 감소는 10만 명에 미치지 못하나 취업자 감소는 11만 명에 이른다. 성별과 5세 연령으로 구분한 모든 청년 집단의 고용률은 하락하였다. 고령화에 따른 50세 이상 인구 증가는 40만 명에 가까운 취업자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청년층의 고용부진으로 그 빛이 가려졌다.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이 재개된다면 적잖은 고용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상용직의 지속적이고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jmam@kdi.re.kr).

강한 증가 추세를 들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한 시기에 상용직 종사자는 경기와 무관하게 계속 증가하였다. 올 상반기에도 상용직은 무려 60만 명 가까이 증가하였다. 상용직을 제외한 다른 모든 형태의 종사자가 감소하여 이러한 성과를 상쇄하고 있으나, 상용직의 상승 추세는 고용전망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 다만 올 상반기의 상용직 증가는 신규 채용의 증가라기보다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근속의 증대에 기인하고 있어 경기침체에 따른 노동시장의 역동성 감퇴로 읽을 수도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고용성과가 이례적이다. 장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09년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더 이상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2012년 상반기 들어 제조업 취업자는 8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 제조업 취업자는 무려 12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제조업의 이러한 성과가 있었기에 서비스 부문의 부진을 만회하고 상반기에 그나마 30만 명에 가까운 고용실적을 낼 수 있었다. 올해 상반기 서비스 부문의 고용증가폭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30만 명이나 감소하였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 등을 둘러싼 대외여건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일본의 공격적인 통화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경기회복이 종료된 201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올 2사분기 성장률을 볼 때 일단 하락세는 멈추었을 가능성이 높다.

2012년에 우리는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한 고용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의 고용성과는 크게 저조하다. 상용직 위주의 고용증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제조업의 고용성과가 지속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경기회복에 따라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등에서 고용 감소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서비스 부문의 부진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면 상반기보다는 더 나은 하반기 고용성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한다면 연간으로 보더라도 올 취업자 수는 3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경제주체들의 활력이 크게 회복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추가로 보태진다면 더 나은 고용성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KLI**